

탄핵 불복?...진실 밝히려면 검찰수사 받아야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 엄중 처벌 촉구 한목소리

친박 서청원·최경환 등 사저 보좌라인 결성...행보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탄핵 불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국민통합의 소명을 외면하고 지지자들에게 불복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동안 야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처벌 요구가 보수 세력의 재집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전날 '불복 시사' 발언 이후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붙잡히기보다 미래로 가야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의 차

별성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그나마 갖고 있던 연민과 관용을 버렸을 것"이라며 "이제 관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검찰도 단호한 수사로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저로 복귀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기간 추스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불복 선언을 들으며 그런 마음조차 사라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승복, 반성, 통합 메시지는 끝내 없었다. 국민은 실망했다"며 "자신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랐다"고 비판했다. 추승용 원내대표도 "진실은 정의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밝히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공세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적대감과 증오와 부정의 정치는 다른 당의 몫으로 남겨둬도 된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삼삼동 사저로 복귀한 박 대통령을 위해 역할을 나눠 돌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받지 못하고 검찰 수사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친박계 의원 중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총괄 업무를,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의원이 정부, 김진태 의원이 법률, 박대출 의원이 수행 업무를 맡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로 했다.

전날 현재 선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 민경욱 의원이 대변인격(格)으로 박 전 대통령의 소식을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친박계 의원들이 삼삼동 사저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도 관심이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일정이 없는 가운데 사저 2층에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주선 오늘 대선 출마 선언

"호남 주도 정권 창출"...국민의당 경선 4파전



실천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의 대선 도전으로 국민의당 경선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주선 국회의장이 13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일(14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겠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선언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대권에 눈독 들이며 탄핵 정국에 편승한 여타 후보와는 다르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호남 민심의 열정을 재현시켜 '박주선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경선에서의 승리 근거에 대해 "국민참여경선이러는 점에서 뒤늦게 출발했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도 자존심이 상하고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돕으로

다. 박 부의장이 과거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호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인지도와 조직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표심을 놓고 안철수·손학규·전정배·박주선 등 치열한 4파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당 경선 흥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돌풍을 일으킨다면 최종 경선에서 결선투표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서 세화산 손학규...종교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오늘까지 후보등록

본격 경선레이스 돌입

국민의당이 13일부터 이틀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에 온 종일 머물며 경선 세물이에 박차를 가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종교계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이어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이후 나흘만에 또 다시 이날 광주를 찾는 등 야권의 심장부이자,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의 세 화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송정 5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주로 중장년 층에 지지를 호소했다.

손 전 대표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현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성 발언과 관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책은 적폐정권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에게 큰 누를 끼친 점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오후에는 국민의당 광주시당 동남갑·서구갑·서구을·북구를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직자 간담회를 이어가며 지지를 넓혀가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이날 경선 예비후보



노인타운 배식 봉사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3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타운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등록을 한 뒤 종교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합리적 중도·보수층을 끌어안으면서도 기존의 전통적 야권 지지층도 보듬어 안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

년 국제포럼'에 참석해 개신교 인사들과 만나고 예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께서 화합의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치권도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 때 같다"며 "통합이란 생각을 같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품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대선 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손 전 대표와 천 전 대표를 아직 후보 등록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일기자 cki@

민주 주자들 오늘 첫 공중파TV 토론

오후 2시부터 90분간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처음 열리는 14일 공중파TV 합동토론회에서 진검 승부를 겨룬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TV토론 국면에서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때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애초 이번 주 예정된 지역 방문 일정 조정하면서까지 준비에 '열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총남지사 측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책임자로서의 감정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이번 토론회가 안 지사와의 '2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경선 출발부터 '삐걱'

이인제·김진·김문수 룰 불만 불참 시사...조경태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자들이 경선룰에 불만을 품고 경선 불참을 경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13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옮겼다. 부산 사하에서 17일부터 내리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15일까지 경선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조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의 대선 주자는 6명이 됐다. 앞서 원우철·안상수 의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환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또 한국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도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주중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전날 비대위 회의를 열어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상태를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려, 홍 지사의 출마 걸림돌은 제거된 상태다.

반면,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권 도전이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현재 방식으로는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경선에 참여할 특례규정을 둔 것은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편법이자 '새치기 경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예비경선과 본경선이 모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데, 대상이 당원이든 국민이든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권자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근린시설
 대지 500평 최저가 776,000,000 건물 419평 감평가 1,108,000,000	 대지 22평 최저가 902,000,000 전용면적 35평 감평가 1,610,000,000	 대지 51평 최저가 210,000,000 건물 60평 감평가 300,000,000	 대지 50평 최저가 99,000,000 건물 28평 감평가 14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나주 보산동 근린시설	운림동 기전빌라	제일오피스텔 29층
 대지 415평 최저가 3,151,000,000 건물 577평 감평가 4,501,000,000	 대지 437평 최저가 212,000,000 건물 91평 감평가 302,000,000	 22평형 6가구(수역성 어주동읍)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물세45만원	 대지 500평 물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